

電算化 작업은 경험이다

電算은 경험이다.

電算化 시범기관이라는 어느 시골 면사무소에 村老 한 사람이 찾아왔다.

손자녀석의 학교입학서류가 필요하다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왔다는 것이다.

담당직원은 세대주 이름을 할아버지가 부르는대로 「집망균」이라고 컴퓨터 터미널에 입력했다.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사람 없다고 대답해 왔다.

다시 담당직원은 할아버지에게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늙은이가 증명이 뭘 필요해서 가지고 다녀. 우리집안은 대대로 「곤재마을」에 살아왔는데 나를 의심하여 증명서를 보자고해」하고 호통을 친다.

담당 직원은 「할아버지께서 성명을 똑똑히 대지 못하시니까 그렇지요. 컴퓨터에서 찾아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드릴 수 있는데 성명이 틀려서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하고 딱한듯이 말한다.

이것은 전산화작업이 현실과 맞지않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전산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어 주민에 봉사하겠다는 기본정신과 처리해 주어 주민에 봉사하겠다는 기본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 결과인



노연후

대검찰청 전산기부관실 전산처리관

것이다.

여기서 단편적이거나 운영과 프로그램개발 두 측면에서 예를 생각해보자.

첫째 운영담당직원이 현명하여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김망균」이라는 이름을 듣고나서 우리나라 성씨중에 「김씨」가 없으니 「김씨」를 할아버지께서 잘못 발음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김망균」이라고 키인(Key in)해보거나 「망균」을 「만균」이라고도 찾아보고 했으면 쉽게 나왔을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理, 洞별로 세대주 색인부를 만들어 먼저 이것을 찾아보고 정확한 색인을 키인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나라 성씨 중 「김」씨가 키인되면 「김」씨로도 찾아보도록 개발했으면 쉽게 해결됐을 것이다.

여기서 시스템설계자는 담당직원이 그 정도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電算시스템 설계자는 모든 예외의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現業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만이 가능할 것이다.